

BPA-MPA, 입출항 데이터 교환 ‘선박기항 최적화 국제모델’ 추진

송상근 사장, MPA 청사 방문
각 기관 PCS 연계 기항정보 교환
데이터 교환 정확도 최종 점검하고
보안성 검토 후 연내 실제 적용 계획
친환경·탈탄소 분야 협력 논의도

송상근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싱가포르해사항만청(MPA)을 찾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선박의 입출항 시각 등 기항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디지털 및 친환경 분야 협력과제 발굴에도 나선다는 데 합의했다. 공사는 또 싱가포르 소재 PSA 인터내셔널(글로벌 터미널 운영사)과도 항만 운영·디지털 전환 등에서 정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송 사장은 이달 초 MPA 청사를 방문해 탄호순 부청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부터 양 기관 실무진이 추진해 온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증 및 현장 적용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항만 간 선박 기항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를 추진 중이다. 각 기관의 항만커뮤니티시스템(PCS)인 부산항 ‘체인포털’과 싱가포르항 ‘오션스-X’를 연계해 선박의 예정·실제 입출항 시각 등 기항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PCS란 선사·터미널·운송사·운송사 등 항만물류 관계자들이 선박과 화물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말한다.

지난 4월 데이터 연계에 합의한 이후 교환할 정보와 시스템 연결방식을 확정하고 개발과 시험을 진행해 왔다. 현재 데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이 1일(현지시간) 탄호순 싱가포르해사항만청 부청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PA

이터 교환의 정확도를 최종 점검 중이며 보안성 검토를 거쳐 연내 실제 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

양측은 면담에서 PCO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항과 싱가포르항의 협력을 전 세계 항만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항만 간 데이터 교환의 대표 모델로 키워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친환경·탈탄소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MPA는 대체연료 공급체계와 안전기준 마련, 친환경 연료의 실증과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육상전원 공급설비 도입, 하역장비 전동화 등 부산항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정책과 실증 경험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송 사장은 이어 싱가포르 소재 PSA 인터내셔널 본사를 찾아 옹키폴 CEO와 면담했다. 양측은 세계 주요 환적항을 운

영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항만 운영과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PSA 인터내셔널은 총 45개국에서 70여 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각각의 환적항 운영 경험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송 사장은 “부산항과 싱가포르항의 협력이 단순 교류를 넘어 시스템 연계와 항만 간 데이터 표준화의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9일 개소한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지점을 중심으로 기관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항만 운영을 비롯해 디지털·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농지 전수조사’ 잘못된 정보 바로 잡는다

농어촌공사, 현장 설명회 열어
정부 농정 취지, 현장에 제대로 전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관련 해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에 나섰다. 최근 현장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를 듣고, 정부에서 실시 중인 전수조사의 취지와 향후 정책방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관내 농민단체 등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공사의 윤소하 상임감사가 현장을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상임감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되,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농지제도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의 세대 전환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서 열린 ‘농지전수조사 현장설명회’.

다”며 “정부의 농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면서도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돼 다시 한번 말씀 올린다”고 했다. 또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상속과 이농, 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거짓 영농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의 투기 행위에만 엄정 조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5극3특’ 미래상 AI 공모전 진행

내달 13일까지… 최대 200만원

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변화할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의 시선으로 그려보는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5극3특 성장엔진 미래지도’ AI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방 권역을 자생적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된 권역별 성장엔진이 가져올 지역 산업과 주민 삶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영상으로 표현하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는 중부·서남·대경·동남권과 전북·강원·제주 등 7개 권역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성장엔진을 활용한 미래 모습을 담아내면 된다. 브이로

그, 타임슬립, 웹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 가능하며, 출품작은 30초 이상 2분 이내의 AI 영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7개 권역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21점을 선정하며, 수상작에는 최대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접수는 한국산업기술평화원(KIAT) 홈페이지 및 전용 접수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성장엔진을 통해 달라질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기회”라며 “AI라는 새로운 창작 도구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력도매가격 26% ‘썰렁’… 한전 부담 가중

전력거래소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평균 SMP, kWh당 148.39원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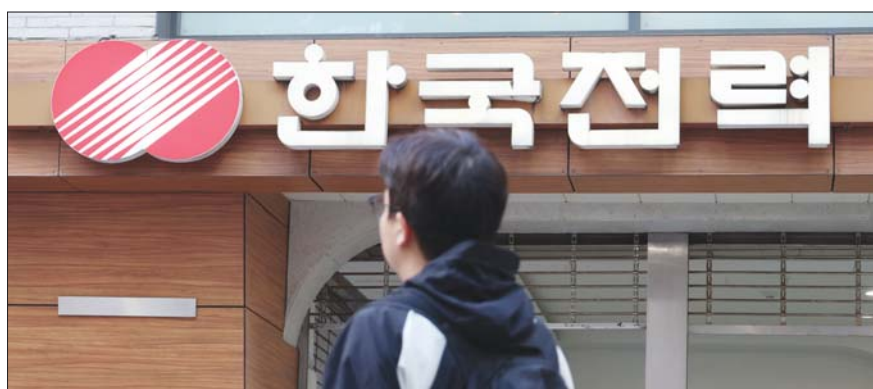
한전, 정부 전기요금 동결 기조에
6.3% 비싸게 사고 1.2% 싸게 판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력도매가격(SMP)이 킬로와트시(kWh)당 150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도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가격으로, 정부가 제시한 한전의 적자 전환 기준을 넘어선 수치다. 이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평균 SMP는 kWh당 148.3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7.40원)과 비교해 1년 만에 26.4% 상승한 수치다.

SMP가 급등한 건 중동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발전 연료의 열량 단가가 크게 오른 탓이다. 실제 LNG 열량 단가는 기가칼로리(Gcal)당 9만3901원, 석탄은 4만174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0%, 31.4% 올랐다.

SMP는 연초 1월 kWh당 104원에서 5월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뉴스

121원까지 오르다 6월(114원) 잠시 주춤했으나, 7월 134원, 8월 148원으로 하반기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초 발생한 중동 전쟁의 충격이 하반기 전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차츰한 전력 구입비 부담을 한전이 온전히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의 ‘7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7월 기준 kWh당 165.1원에 전력을 구매해 179.7원에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전력은 6.3% 비싸게 사 온 반면, 판매가는 오히려 1.2% 저렴해진 구조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 7000억원, 차입금은

133조원에 달한다. 매일 지출되는 이자 비용만 115억원에 이른다.

구조적으로 연료비 상승분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전기요금(일반용)동결 기조는 14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필요 조정단가를 kWh당 7.3원으로 추산했으나, 정부는 올해 4분기(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일제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평균 SMP가 kWh당 146원을 넘어설 경우 한전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월 월평균 SMP(148.39원)는 이미 이 기준선을 넘어섰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양 불법투기 행위 3년 연속 증가세

5년간 ‘해양 불법투기 적발현황’
기름류 1221건… 85% 달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무단투기 행위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간 기준으로 다시 300건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양 불법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최근 3년째 늘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09건에서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307건으로 다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름류 투기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1430건 중 기름류가 1221건으로 무려 85%에 달했다. 이어 폐기물 161건(11.3%), 대기오염물질 27건(1.9%), 유해액체물질 21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서별로는 부산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61건, 목포 145건, 울산 100건, 통영 96건 순이었다. 특히 아열대 상위 5개 해경서에서 적발된 건수만 전체 불법투기의 53.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해양 불법 배출은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요 항만과 해역에 상시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사전 계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